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15th N.E., Seattle, WA 98125 Paul H. Shin, Publisher Shi Chung Park, Editor

VOL. 2 NO. 9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ec. 1975

제9회 한인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임명될시 -

제9회를 맞은 한인회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11월 8일 저녁 7시 30분 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무 장진섭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호범 한인회장은 총회개회사를 통하여 1975년도의 한인회가 그 출발의 목적인 "교민에 대한 봉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해동안 노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여 온 여러 임원과 또한 금으로 양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한인회가 발전하여 가도록 더욱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으며 회의는 곧이어 사업보고에 들어갔다.

그사업보고에서 한인회는 교민에 대한 봉사의 사업을 위하여 「신임 교포문제 상담소 위원」을 선출 하였으며 "한국의 밤"을 거행하여 Seattle Community와의 유대를 강화 하였고 SEA FAIR에 참석하여 한인 교포의 자라를 보여주며 또한 경노회를 열어 노인들의 참여를 꾀해 한것 등 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애쓴 사업이 보고되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P 6 에)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는 그사업보고에서 두차례에 걸친 영화상영과 기금모집 오찬회를 갖인바 있도록 변하고 현 기금비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 하였다:

Thrift Bonds	---	\$ 7,290.45
ENDING CASH BALANCE	---	\$ 1,429.19
Pledge	-----	\$ 2,790.00
Total	-----	\$ 11,509.64 (계속)

아리랑의 밤

- 북경 밴드 연주하의 향연
- 12월 27일로
- OLYMPIC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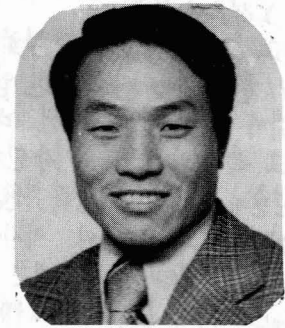
10여년전 한인회가 발족한 이래 예년과 같이 거행되어온 "아리랑의 밤" 행사 차 올해도 1975년을 보내는 마감을 기하여 예정대로 거행되게 된다. 이 "아리랑의 밤"은 한인회와 년륜을 식여주는 년중행사로서 교포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포들이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또한 푸른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등 여러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년중 가장 큰 행사

이번 아리랑 밤 행사준비의 가장 큰 관심의 하나는 이미 작년 부터 실시하여 왔듯이 라코파와 씨애틀에 교포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교포들에게 最大의 편의를 도모하려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씨애틀에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한인회로서는 교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치 못하고 있다.

일시: 1975년 12월 27일 (토요일)
7:30 P.M. - 1:00 A.M.
장소: OLYMPIC HOTEL
GRAND BALL ROOM
DOWN TOWN, SEATTLE
내용: ① 북경 밴드
② TEN PIECE BAND
③ 사교춤과 기타
회원진: 슈 5.00

(후면 계속)

취임사



신임회장 임성길

1975년 11월 8일 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되었던 제9회 정기총회에서 전혀 생각밖이 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저는 "주인이 없는 때 머슴이 주인을 대신한다"고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슴이요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 입니다. 게으른 주인의 머슴이 얼마나 부지런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시키는 주인이 얼마나 응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명실공히 7천여 한인교포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한인회 정기총회에 그토록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서로 각자가 자각해 볼 문제점인 것입니다.

미국시민권 소지자로 영어에도 능숙하고 해도 동양인 또는 한국인 이라고 불리워 쟁하는 우리의 위함을 갚아서, 교포사회를 이리 피하고 저리 파하며 살고있는 한인들여 괴로움도 크리라 믿습니다. 만다면 사위도 안 보면 궁금하고 그리움이 있는것은 태조인간이 사망후에서 살기 마련이지 때문에 슬망이 있는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수명이 있고 한인회는 한인회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인회속에 있는것도 물론 아닙니다. 한인회와 관계되는 문제점을 대변하고 대변하는 모체가 한인회인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며 귀후는 한 마. 정부와의 교섭으로부터 힘으로 (계속)

(1면에서: 한인회 총회 계속)

재정 보고를 거친 이날의 총회는 토의사항에 들어가 권회칙 제2장 11조 1항을 개정하여 "설외부와 조직부를 해체 하고 한인회관 건립부를 신설부로 두어 ... 한인회관 건립회는 자동 한인회로 전환 하며 건립위원회 회칙은 한인회 부칙으로 삽입된다"고 하여 한인회관 건립부가 한인 회와 단일체제로 더욱 효과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한하여 정부회장 및 이사 선거는 11월 25일까지 접수된 입부모자 등을 중요시하여 총회에서 구추선, 비밀투표로 하고 그리고 공신 입원과 이사선거에 중점을 두어 임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은 일반화한 층에서 남성층과 재가층의 이사층에서 이 현 기사가 맡아주었으며 회장에는 김성길 씨 부회장은 Mrs. Ladel Smith 와 안병 용씨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사선출에서는 신로법씨 박암씨 이완 구씨(타코마)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신인회 장 김성길씨는 "젊었다"는 한가지 장점을 살려 여러분의 의사에 순종하면서 일년 간 일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혼자만의 한인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인회가 되도록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강조하였었다. 이날 처음부터 정숙한 가운데 회의는 차 정을 넘어 성료되었었다.

김석민 씨 AAEA 회장에 (ASIAN-AMERICAN EDUCATION ASSOCIATION)

시아틀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김석민씨가 1976년도 아세아인 교육 협회의 (AAEA) 회장으로 (여자로는 최초) 취임 하게 되었다.

이 협회는 워싱턴주 각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아세아인들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회인도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아세아인을 대표하는 교육 협회로서 그 힘이 크다.

교포층에 이미 관심이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심을 요하는 분은 또한 본 협회 회원으로 희망하는 분은 김석민 씨에게 연락을 바라고 있다.

한인회 첫 '명로회' 개최

은혜에 대하여 보답함은 서로 믿고사는 사회를 이루하기에 필요한 기본요건의 하나임은東西가 다름이 없다.

금번 한인회가 경로를 개최하고 잇은 들에게 경의 뜻을 표하는 행사를 시작한 것은 우리 한인사회의 흥회를 위하여 또 하나의 집진을 보았기라고 하였다.

11월 22일 저녁 5시에 시작된 이 행사는 많은 노인들과 그 가족이 참석하였으며 한인 회장 신로법씨의 이 행사의 의의가 큼과 그리고 이 행사를 가늘게 하여준 몇몇 친구 들에게 감사의 드린다는 요지의 간단한 개회 수미이이 한인회 부인회에서 직접 마련한 음식이 대접 되었다.



이해 경로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김미애양(Roosevelt High School 재학)이 지도한 다섯 어린이의 "도라지 춤"과 "인형 춤" 시 퍼니들의 "어머니의 은혜"와 아리랑의 삼중창, 장경애양의 가야금 독주, 그리고 Mrs. Tradwell 인회씨의 화관무는 참가하신 노인들의 마음을 호호 하게 하였다.

흥이 돋아진 이 프로그램은 모인 노인들의 장기자랑으로 펼쳐 들어갔으며 시련된 노년과 춤의 습사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었다"는 것을 표하는듯 애뜻한 심정을 글씨 못하게 하였으며 화기에 애환 가운데 따뜻한 정답을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날 모임은 한인회가 준비한 교포층에 두편의 영화상영으로 밤늦게 까지 시간 가는줄 모르고 계속되었는데 모두가 다 흐뭇한 마음으로 밤 11시경까지 진행되었었다.

타코마 커뮤니티 '한인 친선의 밤' 개최

지난 11월 29일 타코마 지역 한인 교포들은 "한인 친선의 밤"을 개최하고 이고장 교포들의 즐겁고 이채로운 하루밤을 가지었다.

원래 이 행사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포들의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된 행사로서 이같은 목적으로 모인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저녁 7시 "동원 밴드"의 연주에 이어 순회위원장 박암씨의 사회로 막을 올렸으며 씨는 그의 간결한 사회에서 이 지역 교포들의 친목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 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연구하는 것을 강조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석하여 넓은 공간을 채웠으며 프로그램은 끝이어서 동원 밴드의 반주와 더불어 장기자랑으로 들어갔던 노래자랑, 악기연주, 춤 그리고 만담 등으로 다채로웠으며 타코마리에 나타나 새로운 개최의 길에 서 있는 여러가지 무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여 듣고 보는 교포들의 충격을 시원케 하여 주는 듯 했다.

특히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기자랑을 이어 노는 장면에서는 휴신 부모님들이 나오시어 노련한 습시의 노래와 춤과 장기를 보여 젊은이들을 무척하게 하였으며 멀리 시애틀에서도 워싱턴 주에서는 최고 연평자로 알려진 이광희 선생 내외분 그리고 박암 선생이 참석하시어 그 뜻을 크게 하였다.

또한 주내 한인회 친구 임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이모임을 고무하였으며 준비위원 측에서는 이날 참석하여준 모든 교포들과 또한 애환 모임을 준비하는데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그날 자정이 되도록 흥겨운 노래는 계속 되었었다.

- 1면에서 계속 -
(아리랑의 밤)

특히 이날 밤에는 타코마의 목정 식당에서 수고하고 있는 북경밴드가 직접 출연하여 한국의 교포들과 정서를 풍기는 음악을 연주 하였으며 이어 Ten Piece Band의 크며스도 우아한 연주가 계속 될것으로 자못 흥겨운 분위기를 거머 되고 있다.

(1면에서: 신임회장 취임사 계속)

한인교포의 집안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한인회는 선배님들의 희생적인 봉사로서 9년간을 키워 왔던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종전할진간이 막은하고 성숙하기까지 여러분께서는 한인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회를 돕는 일의 길인 것입니다. 다만 불만이 없어야 하므로 원치를 위한 고견과 마음에서 참석하여 고견을 발표하여 주심은 자라는 한인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념을 왜 여러가지 환경과 변화로 가가 추어 의무만을 묵묵히 수행 하여 왔지, 천과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천과는 변화나 위기를 통하여 찾을 수 있었 이 아니고 보, 우리의 주장은 단합된 여론으로 얻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인회장이나 임원이 누가 되건 상관 되지 않는것은 회장을 위한 한인회나 특 정인을 위한 본회가 아니므로 더욱 한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입니다.

신년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각자의 의무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진정한 친목을 도모하며 단합된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생각하리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한인회를 돕는 길이며 나 스스로를 돕는 길인 것 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좋은 주인이시라 바라며 신년 새해에는 보람된 더 많은 일들이 커 거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 소식

신임회장에 박전홍 씨

금번 워싱턴대학 한국학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박전홍씨를 선출하고 새로운 면모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박전홍씨는 현재 동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 재학중이며 학외활동을 마치고 잡지대문을 준비중에 있으며 그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여온 수재이다.

취임의 소임에 대하여 박씨는 U.W. 한국 학생들의 구성성분이 많이 이질화 되었으며 그모두 다양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 외국 유학생만이 아니라 교포 자녀들로서 신입생 학생들이 늘어나며 그들의 지도를 위한 특별 심도 학생회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고

Christmas Around the World에 한국도

Seattle Historical Society 에서는 Christmas Around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매년 성탄절기를 맞아하여 세계 각국의 성탄절 행사와 그 에 관계되는 풍습을 일반 시민에게 소개 하여 왔고 우리 한국도 수차례 걸쳐 이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탄절을 소개하여 왔었다.

예술가 협회의 대표로 있는 박암선생 의 주체로 올해도 예년과 같이 민오와 춤 그리고 교포의 악기연주로 이에 참여하였으며 우방의 여러나라 가운데서 특 이한 우리의 고유풍속의 양부를 이웃 시민 에게 보여 주었다.

12월 6일 4시에 Seattle Historical museum에서 가지게된 이별 발표 는 한인회장 신로법씨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크리스마스의 간단한 유래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합창, 부처춤, 칼춤(김미애양) 장구춤 살풀이춤(Tredwell 인회) 가 야금 독주 (Miss 장경애) 그리고 어린이 바이올린 및 피아노독주 등 동부한트 로그램을 가졌었으며 일반경중의 총애를 잔뜩 받았다.

이성숙 소프라노 독창회

워싱턴 대학 미니 플레이어
- 1976년 1월 11일 (일요일)

워싱턴 대학(U.W.)을 거쳐 뉴욕의 세계적인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1968-1973) 이성숙 씨가 순회공연차 이번 1월 11일 (일요일) 이따 Seattle을 다녀가게 된다. 이성숙씨는 현재 미국 성악계에 서 손꼽는 신진인 한사람으로 데뷔 하고 있으며 우리교포층에 이같은 수재가 있음은. 실로 한국 자랑이 아닐수 없다.

많은 교포들의 찬사와 격려를 바라 마지 않으며 조만 듯있을 음악 감상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장소: Meany Hall, U. of W.
시간: 1월 11일 (일요일) 2:30 P.M.
연락처: 542-3095.

광명호 사건에 온정 베풀어

지난 11월 14일 「오래된」주 서방 러 평양상에서 우리나라 저 인망어선 광명 호가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로 선체 가 불길에 소실되 되었으며 선원 34명 이 미국해안 경비대에 의하여 시애틀항 에 구조를 받게 되었다.

이들 연락을 받은 한인회에서는 한인 과 교인(시애틀 형제교회)들이 합하여 병 원 문병, 용역, 개별의류제공, 그리고 각 가정에 2-3 명의 선원을 초청, 음식을 나누고 긴급한 도움을 베풀었으며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멀리서나마 김밥을 제공하는 온정을 베풀어 따뜻한 교포애를 보였다.

상항 총영사관에서는 15일 윤관 총 영사가 직접 현지에서 도착 선원들을 방문 하고 차국편과를 도왔으며 윤관총영사는 후에 신임한인회장 김성길 씨에게 시애틀 한인교포와 교인들이 구조된 선원들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도움에 분국정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드린다는 감사의 뜻을 보내어 왔었다.

민관식 씨 시애틀 방문

전 국회의원과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바 왔는 민관식씨가 지난 11월 16일 시애틀에 들려 3일간 체류하고 18일 떠났다.

씨는 뉴욕에서 가진 바 왔는 동양 교육 연구자 뉴욕에 들렀다가 카주도중 시애틀에 들린 것이다.

한인회에서는 17일 저녁 시내 경원식 당에서 간단한 오찬을 가지고 교포들과 면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재미교 포 자제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그의 이론에 대한 관심등으로 장시간의 의하고 흥미있는 시간을 보내었다.

한인회에서는 재미한국 아동들을 위하여 문교부에서 발간한 한글과 영문의 차이과 파서를 신경한과 열정을 보내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 한인회의 소우로서 회원들간 에 쓰여지도록 조치가 될 것이다. 한인회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1975년도 한인회 사업보고

종목	장소	시월
3.1절 기념행사	워싱턴대학 KameHALL	3월 1일
제1회 교회대항	Shoreline Community College	4월 12일
시애틀 시장이 한국의 날로선포	시장실	4월 24일
한국의 밤	올림픽 호텔	4월 24일
합병준대사를 모시고 화담회	Shoreline Community College	4월 25일
워싱턴-밴쿠버 전선 야유회	피니아취 파크	7월 12일
한국의상발전회	워싱턴 대학 Ethnic Center	7월 27일
SEA FAIR	화이나 다운	7월 31일~8월 1일
8.15 기념행사	링컨 파크	8월 16일

(계속)
제1회 경노회 Shoreline 대학 11월 22일
한인회 정기 총회 Shoreline 대학 11월 8일
아리랑 밤 Olympic Hotel 12월 27일
(총무부 제공)

한인회비

성명 -----
주소 -----
보내실 주소:
Mrs. Ladell Smith
921 Lakeside Ave. S.
Seattle, WA, 98144.

영어 가르치기
원 합니다!!
워싱턴 대학이나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거주한 말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 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그룹 다 포함, 시간: 4:30-3:25-6:23. (연락처)

FROM THE HEART OF THE GARDEN




日光園キャバレー
NIKKO GARDEN
1421 - 6th AVENUE • SEATTLE, WA 98101
Telephone: 624-3947

(시애틀 한인회 제 7기 제 2기)

僑胞社會年韓人會


원래 才能 없고 말 할 줄 모르는 이사람에게 글을 써 보내라는 부탁을 받고 평시에 느끼어 온 것을 말하여 여러분들의 충고를 받겠습니다.
1955년 11월에 留學生의 一人으로 渡美하여 57년 6월에 처음으로 李昌烈先生과 徐斗鍊先生을 뵈옵게 되었고 그해 여름 방학동안 돈벌이를 하려고 就職을 두先生님들에게 부탁하고 李昌烈先生님宅에서 페를 끼친 사실이 記述에 새삼스럽습니다.
그 당시 이 地方 교포수는 百名에 미달했으며 모든면에서 미숙한 輩으로 先輩들의 指導처럼 必要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취직이 되고 지도의 德分으로 Seattle에서 계속 살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 地方의 교포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67년에 李昌烈先生과 徐斗鍊先生의 권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韓人會 發起人會를 지금의 Tower Hotel에서 개최했으며 그 발기인의 한 사람이 되어 韓人會에 계속 參考하여 왔습니다.
발기인들의 誠意로 同年에 한인회가 結成되었고 初代會長에는 李昌烈先生께서 주대 당선 되었고 二回會長에는 이선복씨가, 三回會長에는 全善相 박사 四回와 五回에는 不充한 本人이 한인회장을 맡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二年間 아무런 功績도 없이 허송세월한 本人이 이 글을 呈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最近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때 韓國政府要人였는 한분이 이 地方을 訪問하여서 다른 선배 諸君들과 이야기 하시는 가운데 ... 내가 長官 했을 때, 이것도 해 놓고 ... 내가 長官 했을 때, 이것도 해 놓고 ... 를 數次나 告發 받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功績을 알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인지 또는 무시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인지 區別할 수 없으나 第三卷을 지적하면서 "바보"라는 말씀을

받 먹듯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라면서 功績을 만들기 위하여 長官職을 지냈는지 또는 國民을 尊重하여 이었습니다.
지난 三年間 本人도 좀더 積極히 한인회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고 功績을 남기었던을 功績의 화제가 많을 것이었으나 그렇지 못하여 감히 여기에 열거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數年前이나 지금이나 本人이 몇가지 功績을 남기고 現實에 부응한 功績을 이機會를 통하여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四, 五年前만 하더라도 한인교포사회가 白人系社會는 勿論 다른 東洋系社會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수년전만 하더라도 미주인들에게 우리교포들이 功績을 올린 양한 것이 많이 있었으나 이 나라에서 살며 지닌 義務를 다 하면서도 人權의 보장을 못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장으로 인하여 渡美한 국민들 중에서 受難者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理由의 하나는 한인교포사회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교포들이 단체로나 개인으로 무시당하는 예가 허다하였기 때문입니다.
美國 政治人들은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數를 중요시 합니다. 현재 우리교포사회에 유권자수가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권리와 자위를 確保할 수 있는 條件이 구비되며 우리의 뜻을 표현해야만 되겠습니다. 개인각자가 意思를 表示하는 것도 좋을 것인데다가 他人을 대표하여 意思를 傳達하는 것이 현사회에서는 가장 有効한 方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美國 연방정부의 재경원장은 合法的인 團體에만 주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사회는 未법적으로 판결해야 되겠습니다. 본회 創設 이후 50일이 이르기까지 본회의 育成을 위하여 소구적인 분들도 있으나 各個人의 意思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自由는 있는 것이 아니라 結果의 自由는 없는 것입니다. 實질적 功績은 대외적 活動에 있어서 積極의 功績을 위한

것이라면 積極 協力이 필요 합니다. 교포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勞力奉仕하는 개인 또는 團體의 功績들이 根據 없이 비평의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포를 돕는 것이며 우리의 후사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교포사회는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뒤를 따르는 후세들의 교육문제와 처세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移民오는 분들의 學生 문제가 先決문제임을 韓人會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個人의 힘으로 解決 못하는 것은 團體와 結合하여 解決의 方策이 보이는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李 賢 基

「補記」
지난 2호(8)의 서두수 선생의 「워싱턴 대학을 거쳐간 한국사람 일군」의 「오늘날의 고려대학 사회과학은 장년하는 것 걸음부터」라고 하고는 글을 맺지 못한 곳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몇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즉
L--- 첫 걸음부터는 이어서 L---
한편하여 특히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을 연구할 때에야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중적 공은 워싱턴 대학 사회학과가 장려하는 졸업생의 하나이다. 그리고 연대까지 한국 졸업생으로 홀로 있었고 한국을 떠난 사람으로 혼자인 리리학 전공 김현길 군이 있다. 자당에게 형이 지극한 젊은이다. 6월 회장으로도 일한 적이 있다. 지금 프리다에서 대학생들은 가르치고 있다.

東洋園
12822 PACIFIC Hwy S.W.
TACOMA
588-5000



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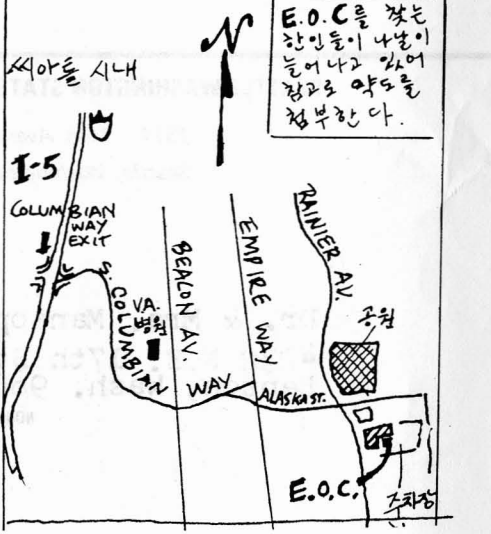
- 알맞는 주택알선
- 노리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 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워싱턴주 한인회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포 사회에서 한인회비가 쓰여질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로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부실하여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의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한인회를 돕는 의지에서 1975년도 한인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5불 이상, 만 18세 이상의 학생 및 독신자, 3불인데 아래양식 참조, 주소, 성명, 금액을 정확히 적어 한인회 저주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를 보내실 때는 수표나 어니오더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글러주사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메일 발행되는 한인회보 이명단을 발표하므로 영수증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인 회비 납부 ★

- 임용권 \$5.00
- 최익환 \$15.00
- 박찬오 \$10.00
- 서두수 \$10.00
- 최용길 \$5.00
- 신부식 \$10.00
- 윗창L \$5.00
- 신길범 \$3.00
- 이영H \$5.00
- MARRY HAWKINS \$10.00
- 박옥길 \$10.00



안병용

부동산·보험



시애틀
838-2010
타코마
927-2277



*성실과 봉사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PHILIP BYUNG-YONG AHN 안병용
부동산 집·아파트·땅-매매-관리-전세
보험 차·건강·교육·저축성 생명·IRA

구독신청서

- * 한국일보는 미국소식4면 본국지8면, 총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 매일12면을 발행하는 신문은 오직 한국일보뿐입니다.
- * 한국일보는 교포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입니다.
- * 한국일보는 서울과 같은날자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KOREA TIMES Information Call (206) 228-6211 or (206) 622-7374 (GIL R. KIM)

THE HANKOOK ILBO & KOREA TIMES

Seattle Bureau

P. O. Box 2086 * Renton, Wa 98055

★ 기부금 ★

- 권장성 \$10.00
- 이동립 \$100.00
- 신평범 \$40.00
- 조요한 \$10.00
- 조요한 \$10.00
- 황수천 \$25.00
- FIRCREST SENIOR CENTER \$110.00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AMERICAN COMMUNITY SINCE 1967